



대입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전형이 대표적이죠. 전반적인 대입 전형이 궁금하거나, 내게 맞는 전형 정보만 집중적으로 보고 싶다면 '골라 읽는 전형 분석' 시리즈를 활용하세요. 매주 하나씩 각 전형을 세밀하게 파헤칠 예정입니다. **_편집자**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정시 전형

골라 읽는
전형 분석

정시 전형 3

나에게 유리한 수능 점수 반영 대학은?

대학 합격은 대학별 환산점수의 석차로 갈린다. 대학별 환산점수는 수능 활용 지표, 영역별 반영 비율, 수능 반영 영역(과목) 수, 가산점, 영어와 한국사 반영 방식 등 다양한 변수를 따져 각 대학마다 다른 환산식으로 구해진다. 대학별 환산점수는 입시 기관이나 교육청의 프로그램으로 자동 계산되지만 학생의 수능 성적 구조에 따라 유리한 대학과 모집 단위를 찾아야 성공적인 정시 원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대학별 환산점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반영 영역 수, 가산점에 대해 알아봤다.

취재 박민아 리포터 minapark@naeil.com

도움말 동파(동파의 대학입시 이야기) · 유용현 소장(목동 미래탐구)

자료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고1·2학년 진학지도 자료집 정시 전형의 이해와 대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 대입정보 119> 각 대학 2021학년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대학별 환산점수란?

각 대학은 수능에서 받은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변환 표준점수 등의 활용 지표를 사용한다. 활용 지표를 정한 후 영역별 중요도를 고려해 반영 비율을 결정하고 대학에 따라 반영 영역 수를 줄이거나 선택 가능하게 설계한다. 여기에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 반영 방식을 결정해 환산식에 반영하고 수학이나 과탐 등의 가산점을 고려하면 대학별 환산점수를 구할 수 있다(표 1).

영역별 반영 비율

수능 영역별 성적이 비슷한 경우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당락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영역별 편차가 있는 성적을 받게 되므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이다.

우수한 성적을 받은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고, 저조한 성적을 받은 영역의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 및 모집 단위에 지원한다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탐구 과목 성적이 높은 학생의 경우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이 변환 표준점수로 탐구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보정하기 때문에 대학별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볼 때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언하기 힘들다.

대부분의 자연 계열은 수학 영역을, 인문 계열은 국어 영역을 더 높게 반영하지만 대학, 계열, 모집 단위에 따라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 요강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표 2, 3).

서강대 서울대 이화여대처럼 인문·자연 계열 영역별 반영 비율이 같은 대학이 있는 반면, 고려대 간호대학과 컴퓨터학과는

표 1_ 대학별 수학능력시험 성적 산출 방식(환산식) 예시

2021학년 서강대 전형 계획

$$\begin{aligned} & \text{국어 표준점수} \times \text{국어 가중치}(1.1) \\ & + (\text{수학 표준점수} \times \text{수학}(가) \text{ 가산치}(1.1)) \times \text{수학 가중치}(1.4) \\ & + (\text{탐구1 변환 표준점수} + \text{탐구2 변환 표준점수}) \times \text{탐구 가중치}(0.6) \\ & + \text{영어} \cdot \text{한국사 등급별 점수} \end{aligned}$$

서강대는 계열과 상관없이 동일한 산출 방법을 적용하고 수학 가형 응시자에게 수학 영역 표준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변환 표준점수는 2020년 12월 중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표 2_ 2021 주요 대학 영역별 반영 비율-인문 계열

대학	활용 지표	국어	수학			탐구			가산점
			가	나	가/나	사	과	사/과	
서울대	표준점수+변환표점	33.3		40				26.7	
연세대	표준점수+변환표점	33.3			33.3			16.7	
고려대	표준점수+변환표점	35.7			35.7			28.6	
서강대	표준점수+변환표점	35.5			45.2			19.3	
성균관대	표준점수+변환표점	40			40			20	
한양대	표준점수+변환표점	30		30(40)		30(20)			
이화여대	표준점수+변환표점	25		25				25	
중앙대	표준점수+변환표점	40			40			20	
경희대	표준점수+변환표점	35(25)		25(35)		20			
한국외대	표준점수+변환표점	35			30			20	
서울시립대	표준점수+변환표점	30			30(35)			15(10)	
건국대	표준점수+변환표점	30(25)		25(30)				25	
동국대	표준점수+변환표점	30			25			20	
홍익대	표준점수	25			25			25	
숙명여대	백분위	35		25		20			

※ (): 한양대(상경 계열), 경희대(사회 계열), 서울시립대(인문 II), 건국대(인문 II)의 반영 비율임

표 3_ 2021 주요 대학 영역별 반영 비율-자연 계열

대학	활용 지표	국어	수학			탐구			가산점
			가	나	가/나	사	과	사/과	
서울대	표준점수+변환표점	33.3	40					26.7	
연세대	표준점수+변환표점	22.22	33.33					33.33	
고려대	표준점수+변환표점	31.25	37.5					31.25	
서강대	표준점수+변환표점	35.5			45.2			19.3	수(가) 10%
성균관대	표준점수+변환표점	25	40					35	
한양대	표준점수+변환표점	20	35					35	과탐 II 3%
이화여대	표준점수+변환표점	25	25					25	
중앙대	표준점수+변환표점	25	40					35	
경희대	표준점수+변환표점	20	35					25	
한국외대	표준점수+변환표점	20	35					30	
서울시립대	표준점수+변환표점	20	30					30	
건국대	표준점수+변환표점	20	35(30)			25(30)			
동국대	표준점수+변환표점	25	30			20			
홍익대	표준점수	16.7	33.3			33.3			
숙명여대	백분위+변환표점	25	35			20			

※ (): 건국대(자연 II)임

대개 인문 계열은 국어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고, 자연 계열은 수학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다. 서울대 서강대 이화여대의 경우 인문, 자연 계열 구분 없이 영역별 반영 비율이 동일하고 서강대는 수학 가형에 10% 가산점을, 한양대는 과탐 II에 3% 가산점을 부여한다.

국어 35.7%, 숙명여대 수학과와 통계학과는 수학 50%를 반영하는 등 특이한 반영 비율을 가진 과들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반영 영역 수

영역별 편차가 큰 수능 성적을 받은 수험생의 경우 저조한 성적을 받은 영역을 제외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해당 대학을 적극 찾아봐야 한다. 3개 영역 이하를 반영할 때 반영 영역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험생이 유리한 영역을 선택하기도 하므로 자신의 성적 구조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자신에게 불리한 영역을 선택하지 않는 ‘지우개 찬스’를 쓸 경우 다른 수험생들의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대입 정보 블로그인 ‘동파의 대학 입시 이야기’ 운영자는 “탐구 영역 반영 과목 수가 1개인 대학을 지원할 경우 탐구 과목 백분위가 각각 80%인 것보다는 90%, 70%인 편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대학을 염두에 둘 경우 탐구 한 과목을 월등히 잘 볼 수 있도록 학습 전략을 세우면 좋다”고 조언했다.

가산점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 선택 유형을 지정하지 않으면 반영 비율만큼이나 가산점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수학 가형에 가산점이 주어지는 경우 수학 나형에 응시하면 향상되는 성적과 비교해보아야 한다.

목동 미래탐구 유용현 소장은 “2019학년 서강대의 경우 수학 가형 가산점 10%로 인해 자연 계열 학생들의 인문 계열 교차 지원이 늘어 경영학과와 경제학과의 합격선이 높아졌다. 2020학년은 수학 나형 표준점수가 예년에 비해 높아져 가산점을 받더라도 자연 계열 학생들의 교차 지원이 유리하지 않았다. 표준점수는 매년 시험 난도와 점수 분포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산점에 따른 유풀리를 꼼꼼히 따져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탐구 영역에서 과탐에 주어지는 가산점은 교차 지원이 가능한 자연 계열 모집 단위에서 자연 계열 수험생이 경쟁력을 발휘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과탐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서울과기대 한양대(서울) 단국대(의예, 치의예) 등과 같이 과탐 II에 가산점이 주어지면 전형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의 성적 구조를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